

“적정 납품대금 확보 제도 개선을”

중소기업 정책연구회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최근 중기중앙회 제기
거래 불공정 해소 방안 논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기업연구원(원장 직무대행 이동주)은 지난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회 중소기업 정책연구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연구회의 주제는 '중소기업 적정 납품대금 확보 방안'으로 최근 중기중앙회가 제기하고 있는 '新경제 3불 문제 중 거래 불공정' 및 '제도 불합리'를 해소하고자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발제에 나선 차경진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납품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 및 개선방안에서 '납품대금 조정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납품대금 조정협의위원회 법제화 및 그에 따른 조정효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조달 제도 개선방안을 발제한 김은하 KBIZ중소기업연구소 연구위원은 "조달 등록기업 중 97%가 중소기업인 조달시장은 중소기업의 주요한 판로로써 적정 납품대금 보장을 위해 낙찰하한을 상향, 기업제출 가격자료의 예정가격 산정활용 등 제도 개선이



지난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회 중소기업 정책연구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나경환 단국대학교 산학부총장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조원택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 김남우 법무법인 트리니티 변호사,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계약제도연구팀장, 이호중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조하도급팀장,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해 중소기업 적정 납품대금 확보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방안이 논의되었다. 정수정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위타격제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의무

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조원택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는 "공급원가에 따라 납품단가가 연동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연구회를 주관한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조달시장 자가계약으로 기업의 연평균 손실이 9조5,000만원에 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정 납품대금 확보, 낙찰하한을 상향 조정, 예정가격 산정방식이 시급히 개선되어야한다"

며 "중기중앙회 조사결과, 수·위탁거래 중제조업에 59.7%가 원가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만큼,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의 이행력 확보를 위한 정부 및 업계의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와 중기연구원은 '新경제3불, 덩어리 규제 등 중소기업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연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3월 14일은 '백설기데이'

농식품부 농협, 온라인 이벤트 진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농협(회장 이성희)은 3월 14일 백설기데이를 맞아 네이버 폼과 카카오북을 활용해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했다.

백설기데이는 우리 쌀을 사랑하고 소비하지는 취지를 살려 쌀로 만든 백설기를 선물하는 날로서 2012년부터 시작됐다.

이번 이벤트는 '소중한 사람에게 백설기로 마음을 전하세요'를 주제로 ▲백설기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인증이벤트 ▲백설기데이 이모티콘 배포 등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백설기 SNS 인증이벤트'는 쌀 소비 홍보 채널인 '미소공간'에 공개된 이벤트 배너를 본인 계정에 업로드하고 이벤트 채널인 '네이버 폼' 응모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사)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이벤트 참여 인증 인원수(1명당 10개)에 따라 최대 1만개의 백설기를 기부·전달하며, 이벤트 참여자 중 150명에게 백설기 경품을 지급한다. 또한, 카카오북에서 '백설기데이'를 검색해 채널을 추가하면 쌀, 백설기 캐릭터를 주제로 하는 이모티콘을 무료로 사용(30일간)할 수 있도록 3만명에게 지급한다.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이번 행사로 많은 국민들이 3월 14일을 백설기데일로 인식하고, 쌀로 만든 백설기를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좋은 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에 국민들 모두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며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북도생물산업진흥원 한우수출연구사업단에서는 홍콩 CoolCool Frozen Food Limited와 축산물 유통 전문기업체인 '더육'과 함께 국내 축산물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유럽인증 취득 '9-Layer 진공수축필름 기술'로

흑돼지 홍콩 수출 시장 개척

한우수출연구사업단-축산물 유통업체 '더육'과 협약 체결

전북도생물산업진흥원(이하 생진원, 원장 김동수) 한우수출연구사업단에서는 홍콩 CoolCool Frozen Food Limited와 축산물 유통 전문기업체인 '더육'(대표 김태건)과 함께 국내 축산물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더육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홍콩 한우 전문 바이어(Director Lim Hee Jun), 한우수출연구사업단(단장 이승재), 전문위원 조영철 박사, 제주도청 동물방역과 김익천 과장, 축산물위생팀 양원종 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축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및 수출 진행의 애로사항인 다양한 기술지원과 현지 실증 교류를 통한 고품질의 제품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우수출연구사업단에서는 9-Layer 진공수축필름과 실시간 Data Logger 기술을 제공하게 되며, 홍콩 현지에서는 품질관리 피드백을 실시간 제공하게 된다.

한우수출연구사업단에서는 2018년부터 축산물 수출 애로사항인 포장 필름

재 개선과 실시간 온도·습도·진동·TVOC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진행해왔다. 특히 9-Layer 진공수축필름은 유럽인증을 취득했으며, 현재는 유럽과 멕시코 등지로 수출까지 진행되고 있어 기술력을 인증 받고 있다.

한우수출연구사업단 이승재 단장은 "국내 기술로 개발된 9-Layer 필름과 Data Logger 기술지원으로 대한민국의 축산물이 우수한 품질관리를 통해 세계 시장으로 확대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더육 축산 김태건 대표는 "이제서야 제주도를 포함한 국내 유통을 넘어 해외 유통의 기반을 마련했다. 한우수출연구사업단의 우수한 기술과 대한민국 제주의 특산물인 흑돼지와 콜라보된 새로운 융합의 성과물이라 판단되며 앞으로 홍콩 현지 바이어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로 해외 시장 개척에 힘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더육 축산유통은 축산물 전문 기업으로 국내 외식업 프랜차이즈 및 학교급식 등에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서부지방산림청, 산불방지 특별대책 시행

서부지방산림청은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지난 13일부터 4월 18일까지의 1개월을 산불예방 및 방지를 위한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서부청에 따르면 금년 봄은 고온 건조한 기상조건과 야외활동 증가로 높은 산불위험과 강풍으로 인한 산불의 대형화가 우려되고 있으며, 서부청은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매 주말 공무원 및 특수진화대로 편성된 46개 조(단속인원 152명)의 기동단속반을 편성·배치 운영한다.

또한 산불예방홍보를 위해 차량(지휘차)을 시장, 터미널 등에 배치해 영상 및 음원캠페인을 실시하고, 주요 산간지역 시내버스에 외부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산불로 인한 재난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조준규 청장은 "불법 소각행위와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단속을 통해 산불발생 위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LED 광원, 새싹작물에 '좋은 영향'

농진청, 새싹작물 속 항산화 물질 함량 증진 확인 사포나린 함량 다른 광원서 자란 것 보다 51.7% 많아

조명에서 사용되는 LED(Light Emitting Diode, 발광 다이오드)가 새싹작물 속 항산화 물질 함량을 증진시키고 생합성 관련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청장 허태웅)은 발광다이오드(LED) 광원이 새싹작물 속 항산화 물질 함량을 높이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지난 12일 밝혔다.

LED는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내는 반도체의 일종으로, 주로 조명으로 많이 사용된다. 최근에는 식물공장, 가정용 채소재배기 등으로 활용 폭이 넓어지고 있다.

농진청연구진은 보리, 밀 등 새싹작물 속 항산화 물질(폴리코사놀, 폴리코사놀) 함성에 가장 적합한 LED 광원과 처리 조건을 알아내

기 위해 새싹작물의 어린 모종에 형광등과 백색광, 청색광, 적색광 등 3가지 색상의 LED 광원을 세기와 시간 등을 조절해 처리했다. 그 결과, 빛의 세기가 100μmol m⁻²s⁻¹인 청색광에서 자란 새싹보리의 사포나린 함량이 다른 광원에서 자란 새싹보리보다 51.7~57.7% 많았다.

새싹밀의 경우, 이소오리엔틴은 2배 이상, 이소사포사이드 함량은 30~68.8% 늘어났다. 폴리코사놀(헤사코사놀, 옥타코사놀) 함량을 측정 한 결과, 새싹보리의 헤사코사놀은 적색광에서 약 20%, 새싹밀의 옥타코사놀은 청색광에서 10% 이상 증진됐다.

이와 함께 사포나린, 폴리코사놀 등 항산화 물질 생합성 과정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 유전자들

분석한 결과, 새싹보리의 사포나린 생합성 유전자 HvOGT1은 청색광에서 강하게 발현했다. 또한, 새싹보리의 헤사코사놀 증가에 HvFAR3 유전자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LED 광원이 사포나린, 폴리코사놀 등 항산화 물질 함량 증진과 생합성 관련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진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학술지 Plants(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mIF)=75)에 게재해 학술적으로 인정받았다.

농진청청정 생물소재공학과 정미정 과장은 "이번 연구 성과는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가정용 채소재배기, 수경재배기를 비롯해 식물공장 등에 활용할 수 있다"며 "앞으로 LED 광원의 최적 조건을 지속적으로 구명해 실용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에 현장실습기회 제공

농식품부, 벤처창업 인턴제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9년 창업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창업 시 장애요인으로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경험 부족과 막연한 두려움이 전체 요인 중 77.7%를 차지했다. 또한, 농식품 분야는 전체 창업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 예비창업자가 창업 정보 및 노하우를 획득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청년들의 성공적인 농식품 분야 창업에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식품 분야 창업에 희망하는 청년들에게는 현장 실무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참여기업에는 잠재적 영업 동반자(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기회를 지원하여 멘토-멘티 간 협업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2020년 실적은 살펴보면 지원 인턴

50명 중 19명이 창업을 완료했거나 향후 몇 개월 내 창업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4명은 실습한 선배기업에 정식 채용돼 일을 하면서 자신의 창업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됐다. 또한 수료생들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는 '만족' 이상 88%, 보통 12%, 불만족 0%로 집계돼, 실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동 사업은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긍정적인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에는 전년에 비해 참여자 혜택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실습기간 동안 인턴에게 주어지는 인턴활동비를 월 105만원에서 115만원으로 10% 인상하고, 인턴수료자에 대한 학점 인정은 3개 대학에서 5개 대으로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 종료 후 창업아이템 발전성 등을 평가해 최우수 인턴으로 선정된 자에 대해 기존 사업과 연계해 통한 사업화자금을 지원(2명)하고, 장관상장을 수여(1명)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대상 및 규모는 농식품 관

련 분야 창업에 희망하는 인턴 50명과 멘토 역할을 할 기업 50개 사 이내이다. 인턴의 경우, 농식품 분야 창업아이템을 보유 또는 발굴 의지를 지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팀)이며, 기업의 경우, 후계 양성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선배 기업으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매출액 1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의 농식품 분야 기업이면 가능하다.

선발된 인턴은 협약된 기업에서 2~3개월 간 주 30시간 이내의 인턴실습을 받는다. 참여기간 동안 인턴에게는 월 115만원의 실습비와 법률·회계·경영 등 창업 실무교육이 제공되며, 기업에는 인턴 1명당 월 4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모집기간은 17일부터 4월 14일까지이며, 전자우편(sej0716@kova.or.kr)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www.mafra.go.kr) 및 벤처기업협회(www.venture.or.kr, 02-6331-7094)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